



S-OIL MAGAZINEApril 2015

Vol. 401

04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사우디이람코 총재 방문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

17 포켓 석유상식 옥탄가와 세탄가 23 두런두런 수다방 사진동호회 서울 출사 제품운영1과 체육대회

38 내 마음의 미술관 대구미술관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 사우디아람코 총재 방문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
-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교육
- 과학문화재단 '과학영재이카데미' 수료식
- 아름다운눈빛미술제 후원 20주년

12 소식 모아보기

- 아스팔트 대리점 워크숍
- 인터브랜드코리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50' 선정
- 정기보수 특별안전교육 · 감시인 교육
- 본사 심폐소생술 교육
- 유류차량 모범운전원 시상

15 단신

• 협력업체 ·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통권 제401호

발행일 2015년 4월 2일

발행처 에쓰-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ㆍ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17 포켓 석유상식

• 옥탄가와 세탄가

18 햇살나눔

- 햇살나눔 스토리보드
- 햇살나눔 후기 · 단신

23 두런두런 수다방

- 사택 벚꽃축제
- 사진동호회 서울 출사
- 탁구동호회 정기모임
- 족구동호회 전국대회 참가
- 제품운영1과 체육대회



32 No.1 주유소

• 대구 대한주유소



100세 습관

• 운전 자세 습관

44

46 나의 <u>롱</u>모델

- 청렴을 목숨처럼 여긴 강직한 법조인 '가인 김병로'
- 품질관리1과 정비울 사우

34 가족 이야기

- 사탕처럼 달콤한 행복을 선물할게요
 - Aromatics생산1과 이선태 사우 가족

48 열린 서재

•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 구영회

36 애호가의 수첩

• 캠핑전문기자 강다경

50 편집공지/독자엽서

38 내 마음의 미술관

• 대구미술관

30 열정 24시

- 인천지사 신해식 사우
- 장치2과 박주용 사우

40 섬을 걷다

- 천혜의 자연이 품은 '보물섬'에 반하다
- 거제 내도–지심도



희망과 도약 설계하는

따뜻한 만남

사우디아람코 총재 방문

사우디아람코의 칼리드 알 팔리 총재가 3월 25일 공장과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사우디아람코 정기 이사회를 앞둔 시점에 한국 일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팔리 총재는 임직원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곧 있을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전했다.



사우디아람코 알 팔리 총재가 지난달 25일 나세르 알 마하셔 CEO와 함께 온산공장과 서울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만났다. 바쁜 일정을 쪼개 현장을 찾은 팔리 총재와 미하 셔 CEO는 직원들의 환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한층 치열해지는 시장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공장을 방문한 팔리 총재와 마하셔 CEO는 신본관 로비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근황을 살피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팔리 총재와 마하셔 CEO는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져나가는 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팔리 총재는 이날 오후 본사 사옥에 들어섰다. 마하셔 CEO는 임직원과 반가운 만남이 성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팔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다가올 4월 사우디이람코 이사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임을 소개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지난해 혹독한 시기를 거친 한국의 에너지 업계에서 우리 임직원이 합심한 가운데 난 관을 잘 돌파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회사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주인공이 곧 임직원임을 환기하면서 미래 성공에 대해 굳은 확신을 나타냈다.



새로운 가치 창출로

성공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우리회사 제40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각종 상정 의견을 의결했다. 세계 경제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해 내실을 다지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우리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회사 제40기 정기 주주총회가 3월 20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주총은 감사보고, 영업보고에 이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이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상정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는 지난해 총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반영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확정했다. 새로운 기타 비상무이사로는 사우디아람코의 관계사임원인 에쓰 에이 알 하드라미(S.A. Al-Hadrami), 아이 큐 알 부아이나인(I.Q. Al-Buainain)이 선임됐다. 또한 새로운 사외이사로 김철수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상임고문, 홍석우 에이티커니 상임고문, 이승원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 신의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에이 에이 알탈하(A.A. Al-Talhah) 전 사우디아람코 임원이 선임됐다.

나세르 알 마하셔 CEO는 전 세계 정유업계에 있어 혹독했던 지난해 시장상황 속에서 위기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 회사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제고와 긴축경영을 강화해 어려움을 헤쳐온 임직원의 노력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 주주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이 보내온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전사적인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회사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경영활동·CEO 동정 글 나유웅인사과

큰 꿈 품은 신입사원

부모와 가족의 자랑입니다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

회사의 미래 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약할 신입사원들이 공장 초청행사를 통해 부모님을 맞이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입사원 부모와 가족들은 회사의 최첨단시설을 견학하면서 정유ㆍ윤활ㆍ석유화학 공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3월 7일에 생산직 신입시원, 3월 28일에 대졸 신입시원 부모 초청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총 100여 명의 직원과 가족이 공장을 방문했다. 점심식사에 이어 공장 투어에 나선 참석자들은 제 · 2공장과 제품출하장, 분해2부 조정실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또한 홍보영상 관람으로 회사의 도전과 도약의 역사를 접하면서 자녀가 꿈을 펼쳐나갈 미래에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리라 확신했다.

신입사원과 부모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만남의 시간도 마련됐다. 신입사원들은 입사 뒤 감회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편지에 담아 낭독하고 큰절과 합창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입사원 부모는 인사말을 통해 사회인으로 나선 자녀에 대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애 틋함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직장 적응에 관해 여러 사항을 당부하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할 자녀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행사는 태화루 관람으로 마무리됐다. 영남 3대 누각 중 하나인 태화루는 우리회사가 공사비 전액인 100억 원을 지원해 재건립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5월 준공을 맞이했다. 가족들은 태화루 일대를 둘러보면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재건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회사의 공헌 활동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우리회사는 2012년부터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행사를 지속하며 직원과 가족의 지긍심과 애사 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편지

당당하고 떳떳한 이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수(이익개선팀)

격려와 사랑,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김송환(Aromatics생산1과)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분 좋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느 누구보다 존경스럽습니다. 한결같은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 회사에 다녀보니 그 대단함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않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내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무한한 내리사랑으로 작은 일도 세심하게 챙겨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방황도 많이 했지만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처럼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며 힘든 일도 꿋꿋이 헤쳐 나가는 지혜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부모님! 늘 건강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실용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상경해 대학에 다녔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울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진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학생활과 함께 에쓰-오일에 관심을 둔 뒤부터는 학과공부와 자격증 등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노력 끝에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기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를 믿고 선택해주신 에쓰-오일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열정을 가지고 회사 비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햇살나눔의 가교로

큰 사랑 이어갑니다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교육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교육이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리회사의 지난 사회공헌활동을 돌아보고, 우수 사회공헌 사례와 특강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공헌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또 우수 자원봉사자 및 부서 시상식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을 독려했다.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교육이 3월 11~12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지난해 햇살나눔 프로그램 시행에 관해 면밀히 되짚어 보고 보다 나은 사회공헌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또한 각 봉사 조직을 연결하는 간사들의 노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봉사 의욕을 다지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에는 본사 운영지원팀을 비롯한 정기봉사팀장과 관계자, 공장 대외업무팀과 부서별 봉사대 간사, 전국 지역본부 · 지사 · 저유소 간사 등 총 7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 일정은 임원 및 초청강사 특강과 사례발표, 자원봉사 활용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신혁 전무가 우리회사 CSR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소개한 데 이어 스타벅스코리아 송혜경 과장과 홀트아동복지회 이창신 사회복지사가 차례로 사례발표에 나섰다. 이와 함께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가 '마음을 얻는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나눔특강을 하고,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정애리 씨가 연단에 올라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인 '튼튼 손마사지' 프로그램은 향후 봉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 습득과 실습의 기회가 됐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주유소 나눔 캠페인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교육에 임했다. 뒤이어 서울시사 회복지협의회 김영은 사회복지사와 하트하트재단 김희은 부장이 우리회사의 독자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화두를 제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의 대미를 장식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부서 시상 순서에 이창재 부사장은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이웃을 돌보면서 회사 를 대표해 사회공헌 현장에 앞장선 직원 및 부서에 상과 꽃다발을 수여했다. 교육 참가자 들은 이 기회를 통해 나눔에 관한 올곧은 철 학을 재확인하고 회사와 더불어 의욕 넘치는 나눔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우수 자원봉사자

- 이지훈(인력개발팀)
- 양상훈(네트워크개발팀)
- 이미수(복리후생팀)
- 김태원(멤버십마케팅팀)
- 김장원(LPG팀)
- 김봉기(Aromatics생산2부)
- 김용민(동력1과)
- 신찬국(산업보건과)
- 안중흥(정유1과)
- 최용관(수소3과)
- 이장혁(광주지사)
- 김수동(창원지사)
- 이병관(강릉지사)
- 한재희(수원지사)
- 장민순(강북지사)

우수 자원봉사 부서

- 사랑의빵만들기봉사팀
- 멤버십마케팅팀
- 고객서비스팀
- 업무부
- 품질관리부
- 강릉지사
- 수원지사



조그마한 노력이 만드는 기적을 꿈꿉니다

하재언(HYC/LUBE공정과)

'기술부문 및 공장혁신/기획부문' 사회봉사활동 간사를 맡은 뒤 처음 참석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회사의 CSR 정책 및 성공적인 CSR 활동 사례, 타 기업의 CSR 사례와 자원봉사 특강 등 늦 은 시간까지 교육이 이어졌는데 관심이 큰 분야라 지치지 않고 즐겁게 임했습니다.

교육 중 '진정한 봉사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고 봉사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상대를 위해, 더불어 나 자신의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봉사활동을 하였는가?' 진지하게 자문했지만 자신 있는 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봉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나와 상대방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강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가짐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모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초청연주도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청소년 단원들이 우리 사회의 도움으로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며, 조그마한 노력들이 큰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을 부문 봉사단원들과 공유하고, 나눔의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리라 다짐해봅니다.

주요 경영활동·CEO 동정 글 강영옥(운영지원팀)

과학 꿈나무의 비상

그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과학문화재단 '과학영재아카데미' 수료식

과학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과학영재아카데미의 제2기 수료식이 개최됐다. 과학 꿈나무들에게 도전의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과학영재아카데미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멘토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효를 더해가고 있다.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과학영재아카데 미'의 수료식이 3월 28일 국립과천과학관(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어울림홀에서 개최됐다. 제2기 수료를 맞아 김시중 전 과학기술 처 장관과 채영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제완 서울대 명예교수 겸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 강민호 전카이스트 부총장 등 과학영재아카데미 지도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한경인지역 과학영재 어린이와 학부모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과학영재아카데미 수료를 자축했다.



2013년 운영을 시작한 과학영재아카데미는 우리 과학문화재단 후원을 통해 과우회에서 시범 운영하는 영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경인지역 초등학교 5 · 6학년 어린이 중 학교장 추천으로 120 여 명의 과학영재들을 선정한 가운데, 과학기술부 장 · 차관, 서울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교수, 정부연구기관 기관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인을 멘토로 조직했다. 이들 멘토의 지도 이래 과학영재들은 저마다 관심분야에 맞는 실험실에서 체험과 토론, 탐구등으로 학습하고, 캠프, 탐방, 연수 등으로 과학자의 꿈을 향해 착실한 걸음을 옮겼다. 특히 과학 영재들의 학부모도 지도교수 특강, 진로 간담회 등에 동참해 프로그램 실효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1~2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현재 중학생이 된 과학영재들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과 인연을 지속하면서 과학자로서 자신의 미래상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과학문화재단의 과학영재아카데미 후원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꿈나무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과학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소개해 도전의 동기를 불어넣는 데에 프로그램의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회사는 학생들이 참된 과학자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국가 발전에 제 몫을 하는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재단을 통해 뜻있는 후원을 지속할 것이다.

글·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10 11

뚝심 있는 지원으로

스무 돌 축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눈빛미술제 후원 20주년

우리회사가 1996년 시작 당시부터 후원한 '아름다운눈빛미술제'가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미술제에는 아마추어 미술인의 높은 참여 열기로 9개 분야 500여 점이 출품돼 전시관람객을 맞이했다. 우리회사가 후원하고 있는 '아름다운눈빛미술제'가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3월 25일 울산문화 예술회관에서 올 행사의 개막식이 열렸다. 30일까지 이어진 미술제를 통해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4전시장에 미술작가와 일반시민 등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 500여 점이 전시됐다.

울산광역시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아름다운눈빛미술제는 울산지역 아마추어 미술인을 위한 축제로, 현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우리회사가 20년 동안 후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 발전을 위해 1996년에 미술제 첫 출발을 지원한 이래 IMF 경제위기와 세계 경기 악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후원을 이어왔기에 올해 행사는 더욱 뜻깊다.

올해 미술제에는 3월 10일 접수 마감까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쇄도했다.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데생과 드로잉, 도예, 서각, 문인화, 민화 등 9개 분야의 출품작들은 단체와 개인 부문으로 나뉘어 전시장에 걸렸다. 몇몇 미술작가들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참여의 기회를 연 미술제의 취지가 빛났다.

한편 특별전으로 마련한 '아름다운 울산 12경 스케치'전도 호응이 높았다. 공모를 통해 출품된 50여 점의 그림에는 가지산, 간절곶, 반구대, 울산공단 야경, 태화강 선바위와 십리대숲 등 울산의 수려한 절경들이 담겼다.

우리회사는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를 이끌어온 아름다운눈빛미술제 후원과 더불어 공연, 전시, 스포츠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لو

더 큰 성공 위한 소통의 장

아스팔트 대리점 워크숍



올해 상반기 아스팔트 대리점 워크숍이 3월 27~28일 리솜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스팔트 대리점 임직원을 비롯해 총 27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대리점 임직원의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일궈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초청강사의 도움으로 설득 · 협상 역량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또한 소통 세션을 마련해 회사를 둘러싼 시장환경 관련 정보를 나누고 판매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업활동 지원을 통해 시장을 주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글 김상범(특수제품영업팀)





'Best Korea Brands' 선정으로 확인한 브랜드 가치

인터브랜드코리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50' 선정

Best Korea Brands 2015

Interbrand Creating and brand value"

우리회사가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50' 선정을 통해 각별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50'은 미국 브랜드 컨설팅 그룹의 국내법인인 인터브랜드코리아가 국내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상위 50개 브랜드를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획득한 평가 방법에 따라 기업 재무 분석, 브랜드 역할 지수, 브랜드 강도 평가 등으로 브랜드 가치를 산정해 해마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기업 상위50개 브랜드 선정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특히 예년보다 1단계 상승한 순위로 올라섰습니다.

글 강주혜(브랜드마케팅팀)

안전한 일터는 안전의식 강화로부터

정기보수 특별안전교육 · 감시인 교육

공장 정기보수(TA)가 진행되는 가운데 작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대해 안전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은 2~3월에 걸쳐 Aromatics생산2부 안전교육과 정기보수 특별안전교육, 협력업체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Aromatics생산2부는 이번 정기보수에서 열교환기 정비, 폐열발전사업 공사, 회전기계 정비 등 주요한 작업을 앞두고 밀폐공간 출입 안전조치, 안전·구급장비 사용법, 가스측정기 사용법, 안전담당자와 감시인 업무, 사고 대처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기보수 부서 공사감독, 엔지니어,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열어 공정별로 잠재한 위험요소를 환기하고 사고 사례를 들어 예방과 대처를 논의하며 안전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에서 중요한 감시인의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 감시인과 함께 안전장비 사용법과 사고 발생 대처요령, 응급조치 등을 공유하며 안전의식을 다졌습니다.



글 박정호(안전과)

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바른 방법

본사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가 본 사 사옥에 설치된 가운데 층별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각층 임직원은 사람모형인 '애니'와 자동제세동기를 눈앞에 두고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의식 잃은 환자의 발견 시점을 가정하고 순차적인 행동요령을 짚어나감으로써 집중도 높은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세한 이행방법을 숙지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료제공 총무팀 비상계획파트

제품 수송 운전의 보람찬 결실

유류처량 모범운전원 시상

유류차량의 수송을 책임지는 협력업체 운전원과 우리 직원이 3월 5일 청계산 산행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가운데 2014년 하반기 모범운전원 시상을 열었습니다. 우리 제품 수송을 담당하는 유류차 운전원의 공로를 표칭하고 산행을 통해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산행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상생과 협력에 관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산행 끝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고경수(구지산업개발) 운전원에게 최우수상을, 윤창식(이트랜스) · 김일중(삼보물류) 운전원에게 우수상을 수여하며 공로패와 주유상품권을 전했습니다.

S-OIL 모범 운전원 시상식

글 하갑수(수송팀)

S-OIL **NEWS**





협력업체 ·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우리회사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및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3월 25일 온산공장에서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오전 우리 임직원과 협력업체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60여 명은 공장 정문 등에서 현수막과 팻말을 게시하고 출퇴근 인원에게 홍보물을 전하며 안전의식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우리회사는 협력업체가 안전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협력업체 자체의 안전캠페인 시행을 지원해 한층 더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6월과 9월에도 합동 안전캠페인을 시행해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임원동정

- 3.1 신현욱 부사장(RUC본부장)—생산본부장
 강선재 전무(생산본부장)—CEO보좌역(Assistant to CEO)
 김형배 상무(RUC VICE PM 겸 공장혁신/기획부문 담당)—RUC PM 겸 공장혁신/기획부문
- 4.1 이용희 부사장(운영Specialist)→Special Assignee(운영Specialist)

인사동정

보직변경

- 3.9 정진호(대리,계전부 계기과)--안전관리부 SHE준법지원과 허성주(주임,Aromalics생산1부 Aromalics생산1과)--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김진영(주임,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인천 저유소 운영담당
- 3.19 심규역(3급:대외업무팀) -- 업무부 총무과장 송인호(3급: 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 부 안전관리과장 겸 SHE준법지원과장 하준호(4급: 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부 SHE준법지원과 김영자(5급 화격관리팀) -- 안전관리부 SHE준법지원과
- 4.1 이호영(제품운영! 제품운영!과)→제품운영!과 교대계장 이실근(제품운영! 저품운영! 제품운영!과 교대계장 이실근(제품운영! 제품운영! 제품운영!과 박기영(노사협력팀 부)→분해!부 분해!과 백 승우(안전보건부 안전과) 송병헌(윤활생산부 윤활유교)→노사협력팀 부 유상용(분해!부 분 해!과)→생산구매지원팀 김병국(전문부장.회계팀)→관리회계팀 이영민(3급.생산구매지원 팀)→프로젝트구매부문 김연실(일반사무직3급.IT기획팀)→판매계획/분석팀

생산직 사원 정기승진

4.1 대리→계장

김인규 김진영 이도정 이정국 김철제 임명국 정만영(정유생산부 정유1과) 신다일 강 진국 김성환 박상덕 엄상영 김영만 박상환 김학범 문장진 송종호 강계창 이종한(정 유생산부 정유2과) 정홍민 손찬용 오형훈 김종근 배수한 박지홍 예동해 오광식 강 원철 김택상 강재호(윤활생산부 윤활유1과) 이상주 김창록 황윤섭 김성진 김원석(윤 활생산부 윤활유2과) 김정환 김태우 안정오 안근규 김승철 우정섭 김영환 이상식(분 해1부 분해1과) 이동욱 정종구 한지훈 피준호(분해1부 탈황1과) 류달용 이상민 이승 환 이상원 이광찬 김준희 배상철(분해1부 수소1과) 권택기 김종업 김육현 이수용(분 해1부 유황1과) 최대순 심준래 강동기 유익상 김원식 윤왕근 성기영 이창걸 이민용 채종국 함대경 백태성 김순현 임원균 성승호 배문한(분해2부 분해2과) 김정훈 최남 준 이인규 정상봉 장진규 엄상용 장호철 이동만 하동영 이기현(분해2부 수소2과) 이 완희(분해2부 유황2과 교대계장) 진대중 박종성 조금생 박치열 고현식 정성근 이상 규(분해2부 유황2과) 김성수 이현봉 심기종 정영천(분해3부 탈황2과) 정성원 정만식 하영호 강성훈 우정환 정종신 남현진 곽기우 강경태 안익성(분해3부 수소3과) 김종 필 문원덕 이재식 이경태 김길영 김종철 최홍렬 임종은 김재웅 김대근(분해3부 정유 3과) 황태호 류종우 박연호 신상민 이윤호 김재식 이병학 박수성 이상무 전일규 전 성호(Aromatics생산1부 Aromatics생산1과) 차병석 문창운 신창성 강대호 송종만 정 성규 이홍석 양진우 정재혁 박정호(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남호천 이천수 강 신기 김주필 김건섭 김진희 이동학 박종필(Aromatics생산2부 Aromatics생산2과) 정 종판 이재복 서성환 하해운 유봉주 김광효 김창인(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 김

동규 김정화 여정구 김성은 우상기 이정대(Aromatics생산2부 Aromatics동력과) 송태민 조 영래 김병로 김홍일 강성훈 김동우 이채환 성상중 김재교 조경환 이종명 박용주 박정철(제 품은영부 제품은영(과) 정장영 송진척 안기호 김기현 전유택 김주현 이종호 노익화 최재 승 윤기영(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 김원만(제품출하부 육상출하과 교대계장) 류재천 홍종 광 이주섭 장대규 서대환 박종만 황규호 이병영 김정일(제품출하부 육상출하과) 윤태근 서 정환 문병수 김형완 홍성기 김석근 박정호 최도호 김낙용 심규신 강형기 이상규 손호상 박 해식 호성민 오병추 왕수진 김대성 양기형(제품축하부 해상축하과) 김창와(제품축하부 항무 방재과) 김용민 박척민 김흥차 서태경 박유선 서인척 김재진 박종성(동력1부 동력1과) 전역 실 발재균 한성은 김진은 발광범 김형진(동력)부 동력2과) 배성형 정정문 김원선 조양호 민 종락 정종현 김상철 유료안(동력2부 동력3과) 권기형 김운영 이순명 조윤철 천창룡 박장호 양병귀(동력2부 동력4과) 박정렬 김강석 강승종 오상민 김사홍 사공성 조용준(동력2부 환 경운영과) 박형률 박성섭(설비관리계획팀) 김동민 장봉석(기계부 예방정비1과) 전기열 김윤 배 공경배 김동길 정주현(기계부 기계1과) 이차호(기계부 기계2과 선임계장 대행) 서효성 조 윤래 박한광(기계부 기계2과) 김용기(계전부 예방정비2과) 이재욱 강정순 김성은 조영식 방 성민(계전부 계기1과) 최중규 한일광 이한진 권영철 윤종필 심관식 정성길 성상현 안인출 (계전부 계기2과) 민경선 이상록 백문후 조웅제 권영구 김근역 오두실(계전부 전기과) 지용 재 김재영 김성진(장치부 장치1과) 전정도 박병태 김임식 김영기 한영태 허진호 최대만 문 성현 송영석(장치부 장치2과) 노재곤 김종명 주기범 김종열 안준경 박성진 여진수 김성순 (공무부 자재관리과) 김무열 심한수(검사부 검사1과) 박장 김승태 김세연(건설팀) 추경구 김 흥준 조종래 장종국 김대식 박창수 김진형 이정관 강호영 이재득(연료연구팀) 이종필 이정 한 류희열 이주현 권영호 황승안 류종우 조홍래 신길재(촉매연구팀) 유재식(기술교육팀) 변 희영 이영덕 서영식(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 안석진 황호철 장성구 백승우 유중옥 심병철 윤연재 김명섭 박동희 박평수 정주영 강경민(안전보건부 안전과) 신찬국(안전보건부 산업보 건과) 황보원석 방경운 곽병희 이태열(환경관리팀) 손종환(기획분석팀) 박석수 이원정(대외 업무팀) 김순창 김영훈 손진희(업무부 총무과) 양동한 손진혁 김기철 최상희(업무부 경리과) 김병호(업무부 보안과) 김형우 박현태 이정욱 장경환 박갑렬 최현묵 김상인 이광호 김영식 김정교 신창용 한병채 김도기 여창호 양귀범 최태수(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최승필 옥창 화 박재목 박육기 이종선 박기철 유증목 이재현 조일충 정병일 박재현 김병훈(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강두한 이동찬(품질보증팀) 류재욱(인천저유소 운영담당 교대계장 대행) 박노 환 강면 박종섭 조균현 전재운 황영진 백병훈(인천저유소 운영담당) 백재열(인천저유소-성 남) 김정연 청윤성 김종형(인천저유소 관리담당) 방수형(구산저유소 선임계장 대행) 양병호 (군산저유소-여수) 임용 곽동일 고범석 이덕수 김효종(영천저유소) 이준민 김택언(제주저유 소) 최기숙(생산구매지워팀) 김병수(노사현렬팀) 이상희 박기영(노사현렬팀 부)

운전원→주임

강승민 송현욱 차명석(정유생산부 정유1과) 최정석 이종태(정유생산부 정유2과) 배태현 전 덕건(윤활생산부 윤활유1과) 김진우 김형주 박정훈(윤활생산부 윤활유2과) 김종경 박동채 장두환(분해1부 분해1과) 한국인(분해1부 탈황1과) 곽동고 박정현 박주용(분해1부 수소1과) 이 영준(분해)부 유황(과) 김병희 김준련 성덕경(분해2부 분해2과) 강현호 박광열 정대성(분해 2부 수소2과) 김민호 한도훈 신준호 김진오(분해2부 유황2과) 고재일 정수복(분해3부 탈황 2과) 정문성 이정민(분해3부 수소3과) 권현옥 김도경 김광우 조용관(분해3부 정유3과) 고성 제 금동언 김남철 김진호 백현욱 정성민(Aromatics생산1부 Aromatics생산1과) 김영재 이길 호 이재옥 최호민 황보경(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강학현 김남건 김효동 문종원 이정 훈 이형로 하영동 김민수 박광진(Aromatics생산2부 Aromatics생산2과) 서영민 이창민 임채 욱 장용훈 하승훈 임지훈 박찬혁 이재호(Aromatics생산2부 Aromatics동력과) 김남원 김승국 (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김재완(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 김현호 김재호(제품출하부 해상 출하과) 김현제 배영민 이동건(동력1부 동력1과) 방광훈 조우영(동력1부 동력2과) 구은우 박 성욱 백동용 이종범 이태경(동력2부 동력3과) 정문길 이성훈(동력2부 동력4과) 유형종(동력 2부 환경운영과) 최홍석(계전부 계기1과) 추성빈(계전부 계기2과) 박석근 손용현(계전부 전 기과) 김경옥(장치부 장치2과) 김진구(공무부 설계1과) 조보람(공무부 설계3과) 남부성(검사 부 검사1과) 박장환(연료연구팀) 허준보(공정자동화팀) 윤영민(안전보건부 산업보건과) 윤수 현 이수연(대외업무팀) 이현일(업무부 총무과) 배윤기 어교선(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김승 혁 김시진 서해봉(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오동혁(인천저유소 운영담당)

생산직 신입사원 부서배치

3.9 김경섭—정유생산부 정유1과 김규성—윤활생산부 윤활유1과 김송환—Aromatics생
산1부 Aromatics생산1과 강기태 박성원 이성범—부해2부 분해2과 하성권—분해2부
유황2과 정종환—분해3부 수소3과 조수범 신병규 석태희 김희수—제품운영부 제품
운영1과 윤현수 이진호—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 박동수—설비관리계획팀 김효성
이원종—기계부 기계2과 권오학 정연정—계전부 계기1과 박지훈—계전부 전기과 양
정우—공무부 자재관리과 임동연 진승오—건설팀 최재욱—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최우성—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 김용환—안전관리부 SHE준법지원과 김상훈 김동
한 임진업—안전보건부 안전과 김태관—군산자유소

입사

4.1 차지훈(4급.Site Preparation부문) 박희선(5급.동경지사)

정년퇴직

3.31 장현순(대리.인천저유소 운영담당)

퇴직

- 3.12 김정옥(4급.인사후생부 인사과)
- 3.16 김범중(4급.원주지사)
- 3.18 서동하(5급,석유화학공정팀)

부음

- 3.3 심우화(분해1부) 빙부
- 3.7 신욱기(전기과) 빙모 최호석(건설팀) 모친
- 3.8 김찬(건설팀) 빙부
- 3.9 김동한(안전과) 부친
- 3.11 황중연(무역세무팀) 조모 김중호(해상출하과) 모친 이세영(기획분석팀) 조부
- 3.12 이진주(신규사업팀) 조모
- 3.14 백인호(신용관리팀) 빙부
- 3.16 이현욱(장치2과) 조모
- 3.19 김현식(용인지사) 빙모 김경섭(정유1과) 조모
- 3.20 홍승표(공정Upgrading추진부) 빙부
- 3.26 윤종열(기계부) 모친
- 3.27 이상기(장치2과) 빙부
- **4.1** 류달용(수소1과) 모친

결혼

- **3.15** 김병호(교대과) 딸
- 3.21 박정민(생산IT지원팀)
- **3.22** 김진현(Aromatics생산1과)
- 3.28 김정호(동력3과)
- 3.29 김형수(PX생산1과)

석유와 업계 동향을 토대로 알찬 상식을 전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평가하는 수치

옥탄가와 세탄가

소비자가 일상 가운데 유류제품을 대하는 가장 흔한 상황은 차량에 '주유할 때'다. 이때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를 구분하는 옥탄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경유차량이 늘면서 세탄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고 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자동차연료의 품질 수준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옥탄가가 높을수록 엔진 노킹현상이 줄어든다

옥탄가는 세탄가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옥탄가는 옥탄 값, 옥테인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옥탄가를 한 줄로 요약하자 면 '휘발유 연소 과정에서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연소 과정의 이상폭발이란 불완전연소를 말하며 흔히 노킹 (Knocking) 현상이라 부른다. 휘발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착화성 높은 연료이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일찍 폭발하거나 연쇄폭발 등의 비정상적인 점화가 일어날 수 있다. 노킹은 낮은 에너지 효율로 휘발유가 연소한다는 말과 같다. 노킹이 자주발생하면 피스톤, 실린더, 밸브 등 엔진 전반을 상하게 한다. 결국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된다.

이러한 노킹을 방지해주는 물질을 안티노크성 물질이라고 한다. 휘발유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노말헵탄에 대비해 안티노크성 물질인 이소옥탄이 들어간 상대적 함량이 바로 옥탄가다. 이소옥 탄의 옥탄가는 100, 노말헵탄의 옥탄가는 0으로서, 이소옥탄의 상 대적 함량이 높을수록 옥탄가가 높으며, 그만큼 안티노크성도 좋다. 현재 무연휘발유의 기준은 옥탄가 91 이상 94 미만이고 고급휘발유는 옥탄가 94 이상이다.

참고로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고급휘발유라 지칭하는 관계로, 휘발유의 품질 자체가 고급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다. 고급 휘발유는 노킹에 민감한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사용하는 휘발유 다. 이런 차량이 보통 고가의 자동차인 경우가 많을 뿐, 반드시 휘 발유 품질이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경유 차량의 노킹과 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탄가

세탄가란 경유의 착화성을 표시하는 수치로써 세탄값, 세탄지수, 디젤지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옥탄가와 달리 세탄가는 무조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안티노크성이 좋은 게 아니다. 이 차이는 휘발유와 경유의 착화 성질 차이에서 나타난다. 휘발유는 착화성이 좋아 착화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어하면서 스파크로 연소를 유지한다. 반면 경유는 비교적 착화성이 낮아 착화성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제어한다. 착화성을 높이는 것과 관계있는 게 바로 세탄가다.

세탄가는 발화성이 좋은 노말세탄의 값을 100, 발화성이 나쁜 알 파메틸나프탈렌의 값을 0으로 한 혼합액의 세탄 함량 비율로 표 시한다. 예를 들면 세탄가 60의 경유란 노말세탄 60%, 알파메틸 나프탈렌 40%로 이루어진 혼합액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유는 세탄가가 적정 수준 이상일 때 시동이 잘 걸리고, 완전연소에 가깝게 만들어줘서 엔진출력과 연비 향상, 소음 및 배출가스 저감에 도움이 된다. 다만 세탄가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될 수 있는데, 착화성이 높아지면 조기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용 경유엔진에 적절한 세탄가는 자동차용 고속엔진을 기준으로 40~60 정도인데, 국내 기준은 '52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쾌청한 마음' 선물하는 기분 좋은 만남

족구동호회 정신장애인 어울림 봉사





만남과 인사

한 체육공원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족구동호회원들과 '태화샘솟는집' 회원이 만난 자리다. 이렇게 인연을 이어온 지 벌써 8개월!

다치지 않게 준비운동

만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둥글게 서서 준비운동 시작! 팔다리 운동에 이어 활짝 편 가슴과 함께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열린다.







족구경기 시~작!

흰색 유니폼을 입은 족구동호회원 2명과 '태화샘솟는집' 회원 2명이 하나의 팀을 꾸려 자리를 잡고, 공격팀의 서브로 경기 시작! 회원들의 실력에 우리 봉사자들이 진땀을 뺀다.





본사 족구동호회가 정신장애인 공동체 '태화샘솟는집' 회원들과 기분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모임의 목적은 오직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기분 좋은 바깥활동은 정신장애로 쇠약해진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무척적합하다. 족구동호회원 스스로도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되었고, 회원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지난 3월 21일에는 서울 망원동의 체육공원에서 만남을 가졌다.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어우러져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족구경기로 호흡을 나눈 값진 활동이었다.







비장의 카드, 여자 회원 투입!

여자 회원도 절대 굴하지 않는다. 손기술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규칙 덕분에 여자 회원이 공격에 나서면 상대팀 전열이 깡그리 무너진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하이파이브

8회차 대결 끝에 하이파이브로 마무리!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의 이마에서 기분 좋은 땀이 배어난다. 이날 족구동호회는 장갑을 선물하며 활기를 북돋웠다.









오손도손 점심식사

자장면과 탕수육 파티! 이 자리는 단지 봉사 현장이 아니다. 2010년 결성 이후 다소 소원했던 족구동호회 활동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만남이다. 족구동호회원들은 이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란다. 족구대회에 함께 출전하는 날을 꿈꾸며!

미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중부지역본부 장학사업

글 김현호(중부영업지원팀)

2015년 3월, 중부지역본부 산하 10개의 팀/지사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중부지역본부 장학사업은 소속 임직원들이 매월 지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해마다 10명 의 학생들에게 연간 1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학생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학생들을 보며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사업 준비과정에서는 10개의 팀/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수소 문했고, 행사에는 본사 신동열 부사장, 윤무영 전무, 서정규 상무가 동참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밝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 장학금 수여에 나선 임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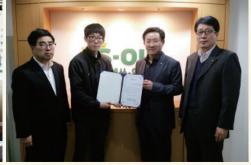
소속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벌써 10년 넘게 지속된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장학생들이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중부지역본부 장학사업 장학생

강남지사	이후민	우신고3
인천지사	최요안	안남중2
강릉지사	정한얼	정선정보공고3
영업지원팀	안훈	평택고3
강북지사	강지웅	삼선중1
중부네트워크관리팀	송시원	장성중3
원주지사	이유진	치악고3
수원지사	이선화	매탄중3
남양주지사	최주애	관인고2
용인지사	송한솔	성남 긍융 고3







강릉지사

영업지원팀

계전부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동행 수영강습

글 권영구(전기과)

계전부 봉사단이 3월 21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문수실내수영장(울산시 남구 문수로)을 찾았습니다. 올해 계전부 봉사단은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나는야 건 강지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이어가려 합니다. 아이들 각자 적어도 한 가지운동을 숙달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올해 꾸준히 배워나갈 운동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는 뒤 봉사단과 어린이들은 수 영장에 들어섰습니다. 수영의 기초부터 시작한 첫 강습은 활기로 가득했다. 어린이들은 수영 강사님의 지도 아래 발차기 기본자세, 숨쉬기, 기판 사용법 등 차근차근 수영을 배웠습니다. 강습을 마치고 봉사단과 자유롭게 어울려 노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져 어린이 모두가 능숙하게 물살을 가르고 수영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날 봉사를 마쳤습니다.





사진동호회 희귀질환어린이 가족 사진촬영

글 박용원(네트워크강화팀)

우리회사가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온 가운데, 본사 사진동호회가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환아 가족사진 촬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에는 경기도 분당의한 스튜디오에서 박현준 아기의 가족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현준이는 우리회사의 수술비 지원으로 2012년 10월에 새로운 담도를만들어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현준이를 반가운 마음 으로 마주했습니다. 또한 아빠엄마를 포함한 현준이 가족이 맞춰 입을 수 있는 가족 맞춤복장을 비롯해 가족 앨범과 액자, DVD로 만든 사진기록, 구도일 인형 등을 선물했습니다.



생산지원부문 문수실<mark>버복지관</mark> 어르신 동행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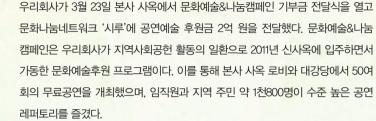
글 김순창(총무과)

올 들어 첫 활동에 나선 생산지원부문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지내 시는 문수실버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노인성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어르신의 일 상도 헤어렸습니다.

이날은 어르신을 모시고 봄볕을 쬐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일대일로 짝지어 울산대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산책 끝 무렵에는 맛있는 점심식사로 '옹심이' 칼국수도 대접했습 니다. 모처럼 재미있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 봉사단 의 마음도 훈훈했습니다.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공연예술 후원금 2억 원 전달

우리회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 로운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나눔 공간을 확대해나 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글 김승배(호보팀)



햇살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1억여 원 전달

우리회사가 햇살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1억 1천100만 원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3월 30일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용연 전무와 김기현 울산시장, 장광수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사업비는 우리 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기관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쓰인다. 올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은 지난해 연계한 사회복지 시설·기관 18개소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공장 각 부서와 사회복지기 관·시설 1개소가 일대일로 연계해 연간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봉사단과 실행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나눔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글 이수연(대외업무팀)



인천저유소 지역초교 돌봄교실 지원금 및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천저유소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3월 30일 연안초등학교(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에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금 150만 원을 전달한 데이어 연안동주민센터를 통해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했다. 인천저유소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글 조원정(인천저유소)





벚꽃나무 아래 핀

정겨운 미소

사택 벚꽃축제

글 조형근(총무과)

봄을 맞아 임직원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사택에 마련됐습니다. 3월 27일 사택 벚꽃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축제 현장에는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뿐 아니라 반가운 소식을 듣고 모여든 28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로 인해 한층 정겨운 자리가 됐습니다.

사택 화단은 아직 꽃이 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껏 부푼 꽃망울을 보니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꽃나무 아래 분식과 과일, 차 등 먹거리가 차려진 테이블이 자리잡았고, 한쪽에는 안전한 놀이기구가 설치돼 직원 자녀들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축제참가자들이 삼삼오오 테이블을 채우며 흥을 더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박봉수 수석부사장의 환영사와 격려로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초청한 혼성 팝페라 팀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노래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직원 4개 팀이 차례로 노래자랑을 펼쳤습니다. 직원들의 출중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에 임직원과 가족이 크게 호응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정점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 덕분에 축제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 모두 자리를 지키며 어울렸습니다. 임직 원과 가족이 모처럼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의욕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였습니다.



보석처럼 맺힌 꽃망울 꽃나무 아래 봄이 무르익는다

결정적 순간 찾아나선

무박2일

사진동호회 서울 출사

글·사진 조일충(품질관리2과)

공장 사진동호회인 영상회가 출사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전' 관람을 겸해 무박2일 서울행에 나섰습니다. 회원들은 각각 부산과 울산에서 심아버스를 타고 서울고속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서울에 도착한 회원들은 첫 번째 목적지인 남산골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몸이 움츠러들 법도 했지만 도심 속에서 전통가옥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에 발걸음은 마냥 경쾌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머릿속에 그리던 한옥의 느낌과는 다소 달랐지만, 스산한 분위기가 과거로 시간여행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색다른 감흥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온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 연예인들이 자주 간다는 갤러리, 핸드메이드 상품 가게 등을 찾아가면서 한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남산골 한옥마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옥마을만의 독특한 분위기 속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메마른 현대인의 아날로그 감성을 되살려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u> 저 마 다 시 각 과 취 향 을 담 는 다 채 로 운 활 동 , 새 로 운 풍 경 에 시 야 가 열 립 니 디</u>

세 번째 목적지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현대 보 $\mathbf{x} \cdot$ 예술사진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출신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그의 삶과 함께했 던, 어쩌면 그의 삶 자체인 사진작품을 약 1시간 동안 감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출사 진행에 힘써주신 김진은 \cdot 권영구 \cdot 김준목 \cdot 최혜정 \cdot 김도영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브레송은 "난 평생 동안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그러나 돌아보니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영상회도 소중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좋은 사진을 많이 담아주기 바랍니다.





열정 불태운

스매싱

탁구동호회 정기모임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u>희망의 서브</u> 도전의 리시브







본사 탁구동호회가 올 들어 처음 정기모임을 마련했습니다. 3월 17일 저녁 7시 대강당에서 열린 동호회 모임에는 유남규 감독을 비롯한 우리 탁구단이 출동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동호회원들은 복장부터 다양합니다. 운동복을 갖춰 입은 회원에서부터 비즈니스캐주얼 차림의 근 무복장 그대로인 회원까지, 첫 모임에 기대를 안고 한달음에 달려온 모습입니다. 우리 탁구단이 동참한 자리이기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유남규 감독과 선수들은 동호회원들을 맞아 경기 지도를 펼쳤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다소 실력이 미흡한 경우도 있고, 웬만한 선수 못지않게 출중한 실력을 갖춘 이도 있습니다. 저마다 수준에 맞춰 눈높이 수업을 하면서 서브와 리시브, 드라이브, 스매싱 등 몸소 자세를 선보인 탁구단 덕분에 동호회원들은 실력 향상에 대한 의욕을 한층 키울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첫 모임은 우리 탁구단의 알찬 지도와 동호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호회가 활기 있게 운영되고, 우리 탁구단에 대한 관심도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네트를 오가는 공 하나에 웃고 우는 우리는 족구동호인

전국 최강 향한

도전

족구동호회 전국대회 참가

글 박형률(설비관리계획팀)





우리 족구동호회가 3월 29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울산광역시장배 국민생활 전국초 청 족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해마다 전국 단위로 열리는 족구동호인의 축제로, 올해 는 15개 시·도에서 126개 팀, 1천200명이 참가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동호회는 '전국 40대부'와 '울산 1·2부'의 동아리 팀으로 출격했습니다. '전국 40대부' 선수는 우리 동호회의 에 이스들로 채웠습니다. 토스에 이광준(장치2과) 사우가 나서고 송영석(장치2과)·정필규(예방정비1과) 사우가 각각 우측과 좌측 수비를 맡았습니다. 공격수로는 송성태(기계1과)·박형률(설비관리계획팀) 사우가 앞장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공동 3위로 1년만에 입상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동아리 팀으로 참가한 정원진(전기과) · 신대광(기계2과) · 김태성(장치1과) · 조성은 · 한길수(장치 2과) · 박민(기계1과) 사우는 비록 예선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로라는 전국의 선수들이 총 집결하는 만큼 성적을 떠나 경기감각과 경험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조성은 사우는 "전국에서 최강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우리회사와 족구동호회의 명성에 걸맞게 최고 공격수로 거듭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명랑운동회

제품운영1과 체육대회

글 안정원 · 노재규(제품운영1과)

제품운영1과는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일부 과원은 공장과 약 3㎞ 떨어진 신원단지에서 근무해 신입사원이 배치된 후에도 같은 근무조가 아니면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40대 이상과 20~30대 초반 연령대의 선후배가 신구의 조화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장 이익개선 포상금을 받게 되면서 괴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쉽고 작은 것부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사를 만들어 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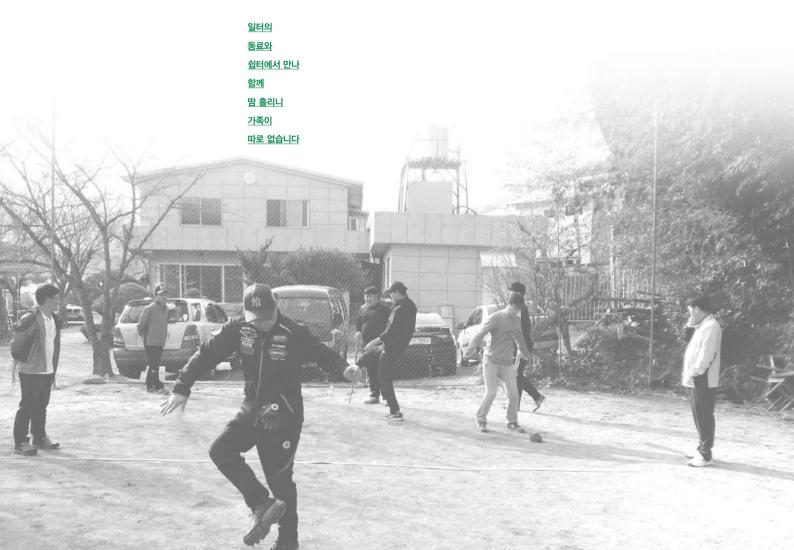
과거 언제 제품운영1과 체육대회를 개최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10년도 훌쩍 넘은 옛일이었습니

다. 그래서일까요? 오랜만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과원들 모두가 적극 호응해주었고, 바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과원이 참여했습니다.

체육대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함께 공을 찼고, 2인3각 달리기, 제기차기, OX 문제 풀기도 했습니다.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선후배 관계를 넘어 형님, 동생처럼 어울렸습니다. 최고참과 막내의 나이 차이가 서른 살 이상 났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습니다.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뜻깊은 명랑운동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씩 나눴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평소 나누지 못한 대화를 하면서 동료들에 대해 더 각별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원 모두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자는 데 공감했고,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조위원장과 사무장, 부위원장 당선자들께서 참석해주셨고, 저녁시간에는 김경태 부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상생의 가치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 사귀는 게 두렵지 않은 천상 영업인

1995년 입사해 온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영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활동적인 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거든요. 고양지사에서 처음 영업 업무를 시작했어요. 본가가 부산인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가려니 가족들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가족 모두적응을 잘 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새 업무가 딱이다 싶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인천지사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지사 분위기가 처진다 싶으면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무실 근처에 캠핑장이 있는데 종종 분위기 전환 삼아 텐트를 빌려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관계자 모두가 합심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작년 판매목표 초과달성, 전년대비 판매증대로 올해 CEO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가족에게 떳떳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수상에 저 혼자만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사의 적극적인 판매활성화 활동, 판매증대를 위한 거래처의 동참,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게 중 요합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하는 부분을 실제 영업에 반영하려 노력 합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불신이 생길 틈도 없어집니다. 10년 넘게 영업에 몸 담으면 서 듣기 좋은 소리보다 진심이 마음을 움직인 다는 점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어린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우리회사와 거래처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CEO 표창

[•] 전략노선상 4개 주유소 유치와 매월 판매목표 초과달성, 판매증대를 시현해 지역 점유율 제고에 기여



함께하는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돌발상황 대처로 단련되는 장치2과

장치2과는 운전 중 긴급정비를 포함해 계획되 지 않게 발생하는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정기보 수 기간에는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장치2과에서 1년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근 무하면서 원유탱크 유황 출하배관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긴급한 작업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추석, 설, 성탄절 등 연휴나 휴일에 긴급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재 빨리 달려와 자신의 임수를 수행한 부서원들 덕분에 무사히 정비를 마쳤습니다. 항상 자신 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부서원들에게 고마 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 족해 "맘 편히 여행도 한번 가지 못하고,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해주고 항상 배려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 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험하고 급한 일일수록 안전, 또 안전

저희 부서는 운전 중인 설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따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의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긴급작업인 경우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부서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이 고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작업을 무사히 마친 뒤 동료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고생하고도 결과가 아쉬운 경우도 있고, 무수한 난관을 넘어서서 작업이 완수됐다는 것을 몰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원들이 혹시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걱정할 때도 있지만, 저는 우리 장치2과원들을 믿습니다. 우리회사 장치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역할을 생각해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서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무사히 업무를 수행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단합된 모습으로 잘 해나가자고 "파이팅!"을 외칩니다.

전국 주유소를 찾아 성공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기름장이 45년

세월만큼 소복이 쌓인 신뢰

대구 대한주유소

처음 직원으로 주유소에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이석유주식회사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인연을 맺어온 주유소의 대표가 있다. 대한주유소 강성근 대표가 주인공이다.

주유소 운영, 천직으로 삼은 세월

"처음 주유소와 인연을 맺은 건 1970년 7월 1일입니다. 직원으로 입사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군에 갔다 와서 그렇게 맺은 인연이 벌써 45년입니다."

강성근 대표는 수첩을 찾아보지도 않고 처음 주유소에 입사한 약 반세기 전 날짜를 콕 집 어 말했다. 숫자를 기억하는 건 따라올 사람 이 없다고 말한 강 대표는 담배 끊은 날짜와 주유소에 발을 들인 날짜만큼은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인다.

직원으로 일하던 강 대표는 1986년 7월, 드디어 자신의 명의를 내건 주유소를 개업했다. 대구시 남구 영남대병원 앞에 위치했던 남대구주유소였다. 직원시절 한이석유주식회사와 인연을 맺었던 터라 정유제품의 품질은 훤히 알고 있었다. 주저 없이 쌍용정유와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회사와 인연을 맺고 있으니 우리

제품 취급주유소 역사의 산증인인 셈이다.

"지금에 와서야 사업가라고 하지만 당시엔 어디 그랬습니까? '기름쟁이'라고 했지요. 그거나쁜 말 아닙니다. 기름밥 먹는 사람을 기름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기름장이 생활이 올해로 45년째네요. 제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5월 27일. 남대구주유소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고 대한주유소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면서 주유소가 운영하기 어려운 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 남구가 아니라 남대구라는 이름을 바꾸게 된 것도 아쉽지만, 소재지와 상호 등 주유소 등록내용이 바뀌면서 연속거래 기록이 끊긴 게 가장 아쉬워요. 안 그랬으면 내년에 거래 30주년이 되거든요."

정직과 믿음으로 이어가는 인연

"어려운 때도 있었고 좋았던 때도 있었지요.

어려운 때는 내가 주유소 운영하면서도 병에 걸린 지형 집에 석유 1드럼 보태드리기도 어려웠어요. 1988년부터 1994년이 전성기였는데, 이땐 탱크로리만 세 대를 운용했죠. 하루 120드럼씩 나갔어요. 나는 추레라 면허를 따서 지프차에 추레라를 달아 배달하기도 했다고요. 주유소에 직원이 열세 명 있었다는 게상상이 됩니까?"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니 부침도 있었지만 지금은 추억이다. 90년대에 주유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거리제한이 풀리면서 주유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옛시절과 경영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강 대표는 여전히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주유소 운영을 직접 한다. 현재 대구시에서 주인이 직접운영하는 곳은 네 곳뿐이다.

"에쓰-오일하고만 거래할 수 있었던 건 신뢰를 중시하는 철학이 서로 잘 맞아서였지요. 정직 하나와 씨름해 쌓은 신뢰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 드니 인연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참 미덥고 좋아요. 거의 가족이죠. 아들 같고 동생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 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 강성 근 대표는 기름쟁이 삶을 언제까지 할 수 있 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니 인터뷰

대한주유소는? 팔공산 공산터널에서 대구국제공항 방면 도로변, 대구이시 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북단에 있다. 오전 5시 반부터 밤 0시까지 운영되며 총 5명의 인원으로 양심적인 주유소, 정직한 주유소를 지향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팔공로 329 (봉무동 941-2) | 053)984-5551

목표와 포부는? 판매량 증대와 같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같은 직원들과 오랫동안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서 이젠 아들 같고 동생 같습니다. 신뢰로 이어온 에쓰-오일과의 관계가 계속됐으면 합니다.



강성근 대표





행<mark>복</mark>을 선물할게요

Aromatics생산1과 이선태 사우 가족

3월 13일은 이선태 사우의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다. 아내의 생일이자 부부가 처음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날을 맞아 이선태 사우의 가족이 기분 좋은 데이트에 나섰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대학 시절 미팅 주선자로 나간 이선태 사우와 미팅에 나온 아내 문인숙 씨는 처음 만났다. 인연이 이어지려 했는지 남자 쪽 친구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져 이선태 사우는 미팅장소로 호출됐다. 아내를 보고 첫 눈에 반한 사우는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기로 했다. 아내는 남편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미팅 날이 3월 13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짬을 내서 케이크를 사갔죠." "사온 게 당신이었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둘은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만나보니 더 이상의 상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사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이벤트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생일 겸 우리 만난 날을 기념하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벤트를 미뤘네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이선태 사우와 아내는 싱그럽게 웃으며 마주보았다.

"착하고 순한 두 아들아, 엄한 아빠에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될게"

조용히 식사를 하는 두 아들은 종종 부모님이 말해주는 연애시절 이야기를 들었다며 맛있는 음식에 집중한다. 이제 중3이 된 큰아들 덕준이와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아들 덕현이는 부부 사랑의 결실이자 자랑이다.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는 남편이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 주부습진에 걸린 적도 있다.

"첫째는 말수가 적지만 듬직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둘째는 활달하고 붙임성이 좋은 우리 집 애교 쟁이죠. 중2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착하게 커주는 아들에게 고마워요."

이선태 사우는 표현이 서툴러서인지 아이들에게 엄한 편이다. 하지만 두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주는 든든한 아빠를 믿고 따른다. 조금은 혼내는 걸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두 아들은 그 이상은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한다.

"좋은 곳에서 즐겁게 식사했네요. 아들은 이렇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대화하다 보니 친구처럼 편한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나면 가족여행을 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독서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기억을 안고 식사를 마친 이선태 사우의 가족은 더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꿈꾸며 집으로 향했다.





두 아들이 부모님께

• 저희도 어느덧 자라서 중3이 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 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가족에게

•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믿고 따라주는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야. 앞으로도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게. 그리고 큰아들 준아! 어릴 때부터 엄하게만 키워서 아빠랑 거리 감이 있지? 이제 친구 같은 아빠로 거듭날게.

엄마가 가족에게

• 회들어도 내색 않고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우리 남편, 이제 나이를 생각해서 술은 좀 줄였으면 해요. 건강을 위해 담배도 한 번에 딱 끊고요. 아들들아! 무엇이든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더 바랄게 없어. 지금처럼 엄마 말을 잘 들어주기 바란다.



전문가들을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주말이 있는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눈을 돌리고 여가 즐길 궁리를 시작했다. 등산, 낚시, 자전거, 웨이 크보드, 스키, 캠핑 등 주말이면 레저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한다. 여러 레저 활동 중에서도 캠핑은 특별하다. '박'을 통해 최소 이틀이 소요되고, 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한 번에 하나의 활동만하는 다른 레저와 달리 다른 레저 활동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캠핑은 첫걸음이 힘들다. 먹고 자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캠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첫 캠핑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 또 몇 번 해본 사람이더라도 머물 텐트를 치고, 익숙하지 않은 코펠에 밥을 짓고, 공용수도나 냇물에 세수를 하는 '고생'이 꺼려질 것이다. 하지만 이모든 걸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묘한 중독성을 지닌다.

캠핑 즐기는 방법 1 캠핑, 제1의 목적부터 정하라

'스르륵 뜬 눈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들고 새소리가 아침을 연다. 조잘조잘 속삭이듯 흐르는 물소리가 멀리 들리고 바람에 풀냄새가 섞여와 코를 간질인다.'

캠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교외의 자연을 떠올릴 것이다.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캠핑의 기본이고 근원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이라고해서 논밭에다가 텐트를 치지는 않는다. 안기고 싶은 풍경을 가진 목적지로 찾아간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영에 가서 물 구경을 좀 하겠다'거나, '지심도에 가서 동백을 보겠다', '자전거로 강릉 일대를 한바퀴 돌겠다', '울산 영남알프스에 갔다가 바다를 구경할 겸 포항 쪽으로 가겠다'와 같은 것들이다. 물론 순수하게 인적 드문 자연에서 사람 부대낌 없이 쉬다 오겠다는 목적뿐일 수도 있다.

목적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오토캠핑이냐, 백패킹이냐, 자전거 캠핑이냐와 같은 캠핑의 종류가 결정된다.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필요장비도 이때 윤곽이 잡힌다. 단, 거창한 명분은 독이 된다. 캠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리더십과 모험정신을 길러주겠다는 등의 목적이 '자연으로 떠난다'는 기본 명제를 짓밟는 명분이 되면 어떤 캠핑이든 즐겁지 않다.

캠핑 즐기는 방법 2 가장 쉽고 안전한 캠핑으로 시작하라

캠핑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텐트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캠핑, 자동차 옆에 텐트를 연결해 붙이거나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오토캠핑, 지갑만 들고 가면 미리 준비된 고 급 시설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필요한 야영장비를 짊어지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떠돌 아다니는 백패킹 등이 있다.

초심자가 생각하는 캠핑은 말뚝을 박고 프레임을 연결하고 천막을 치는 텐트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행위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럴 땐 장비가 미리 준비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좋다. 공식 등록된 상당수의 캠핑장은 미리 마련된 텐트에 묵을 짐만 챙겨서 들어갈 수 있도록준비가 되어 있다.

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어렵고 위험한 캠핑에 도전한다면 즐거워야할 캠핑이 모험으로 변할 수도 있다. 마음에 드는 캠핑장을 발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연으로 향하는

기분 좋은 일탈

캠핑전문기자의 캠핑 즐기는 법

캠핑은 대표적인 이웃도어 레저 활동이다. 소요되는 비용과 즐기는 방법이 천차만별 다른 캠핑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캠핑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의 미술관

사우들의 여가에 풍성함을 더할 전국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세계 미술이 교차하는

다차원 공간

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은 광역시립미술관 가운데 가장 늦게 개관했지만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예술을 세계와 잇는 노력이 이어지는 한편, 가족 단위 시민관람객이 찾는 지역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광역시 단위 시립미술관 중 막내, 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은 2011년 5월에 개관한 신생미술관으로, 전국 광역시 단위의 시립미술관 중 가장 마지막에 개관했다. 광역시립미술관 막내인 만큼 도전하는 열정은 다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자부한다. 그 열정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부터 세계의 유명 미술관과 교류하는 데까지 닿는다.

대구미술관은 시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명칭으로 '시립'을 뺀 '대구미술관'을 사용한다.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인데 여기엔 이유가 있다. '시립'이라는 단어가 관에서 예술전시를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만큼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미술관으로서 가치가 있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이전부터 소장품을 수집하기 시작해 현재 수백 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르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현대미술의 흐름을 대표하는 주요작품과 지역미술의 근간을 이루었던 주요 작가들의 대표작품을 수집한다. 개관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전시가 가능할만큼 소장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획전시가 풍성하고,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전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2003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받은 일본인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전시와 중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 사오강의 전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유럽권 작가로 시야를 더욱 넓혔다. 2015년 현재 오트마 회얼의 설치미술 '뒤러를 위한 오마주' 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술관 곳곳에 설치된 붉은 토끼에 아이들이 직접 타고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계 영국인인 잉카 쇼니바레 개인전, 제2회 애니마믹비엔날레 등도 열릴 예정이다.





관람객은 독특한 공간을 누비고 대구미술관은 세계를 누빈다

보통 미술관의 전시실이 화이트 큐브로 획일적인 모습을 했다면 대구미술관의 일곱 개 전시실은 모두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은 어미홀과, 프로젝트룸, 제3전시실이다.

어미홀은 대구미술관의 중심 홀인데 어머니 지궁 같은 공간이다. 거대한 홀에서는 각종 설치미술이 전시되는 한편 '미술작품과 어울리는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프로젝트룸은 원래 전시공간이 아니라 수장고였는데 전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출콘크리트와 파이프가 작가들에게 실험적인 영감을 준다.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모마 PS1), 영국의 테이트모던미술관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제3전시실은 바깥을 향한 벽면이 거대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열린 공간으로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미술관을 찾은 장 샤오강은 전시실을 둘러보고 영감을 얻어 추가로 전시를 구성해와 진행한 적도 있다.

대구미술관은 지역 내 예술가를 지역에서 머물게 하기보다 국내 타 도시와 해외에 진출하도록 프로모션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유수 미술관의 학예연구사와 기획자, 언론인을 초청해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항상 인기가 좋았는데 도쿄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 카사하라 미치코, 미술전문잡지 〈아트 인 아메리카〉이 편집장인 리차드 바인 등이 초청된 바 있다.



주소 대구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삼덕동 374)

대표번호 053)790-3000

관람안내 4월~10월 화~일요일 10:00~19:00 | 11월~다음해 3월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휴관일)

관람료 어른 1천 원, 어린이 700원

강세윤 학예연구사가 전하는 깨알정보

-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전시 한두 달 전부터 이벤트를 진행해 선정된 분들께 전시 오프닝 행사 초대권 등 혜택을 드립니다.
- 전시실의 차이를 찾아보세요. 전시실마다 특색이 있는데 특히 어미홀과 제3전시실은 태양광이 들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작품이 달라 보입니다.
- 3층 뷰라운지를 찾아가세요. 관람객이 쉴 수 있는 뷰라운지에서는 팔공산이 보여 자연미술작품을 보는 정취가 일품입니다.
- 자가차량을 갖고 오세요,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30분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널찍한 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스타디움, 맛집거리가 있으니 자가차량을 이용하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내도

장승포에서 일운면 지세포를 지나 와현고개를 넘으면 공곶이 남서쪽으로 호수 같은 바다에 섬 두 개가 나란히 떠 있다. 바깥 섬은 외도, 안쪽은 내도다. 내도는 한동안 외도 명성에 눌려 소원했지만, 요즘 '자연이 품은 섬'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내도 명품길'을 조성하여 많은 길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구조라선착장에서 도선을 타니 10여 분 만에 내도선착장에 닿는다. 예전에는 거북이 떠 있는 모양이라 거북섬, 모자를 벗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모자섬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곳은 면적 0.256㎢, 해안선 길이가 3.24㎞로, 옛날 대마도 가까이에 있던 외도가 구조라 마을 앞에 있는 내도를 보고반해서 다가가던 것을 여인들이 보고 놀라 "섬이 떠온다!"고 소리를 지르자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전설을 곱씹으며 마을 쪽으로 길 방향을 잡는다.

2010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명품 섬 베스트 10'으로, 2011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 번 찾으면 누구나 반한다는 '명품마을'로 선정했다.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20가구 이상이 공원구역에 남아 '자연생태와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하여 '탐방객은 찾고 싶고, 지역주민은 살고 싶은' 마을로 발전을 다짐한다. 단, 섬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로 지정·관리되어 야영은 할 수 없다.

예쁘게 지은 펜션을 지나 길모퉁이를 돌면 바다를 향해 커다란 바다거북상을 모셔놨다. 길 끄트 머리의 아치형 문은 해안절벽 위로 오르는 '명품길'로 편백숲으로 안내한다. 육지 못지않게 키 큰 나무, 온대성 활엽상수림이 원시림을 이뤄 살아있는 숲의 비경을 드러낸다. 초록이 짙은 숲에서 이파리를 스치는 바람 한 점 머금으니 싱싱한 내음이 입 안 가득하다. 숲은 사람에게 해로운 여러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대신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방출량이 가장 많 다. 침엽수림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피톤치드인데, 나무 스스로 각종 해충과 곰팡이 같은 세균 으로부터 보호하려 발산하는 테르펜이란 휘발성분으로 사시사철 꾸준히 방출한다.

쉼터를 지나 공곳이 해안이 바라보이는 벼랑에 '동백(冬柏) 포토존'이 있고, 시누대와 겨울에도 잎이 푸르른 동백나무 숲이 이어진다. 동백 잎사귀는 강한 햇빛을 이겨내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표면은 큐티클 층으로 두텁고 윤기가 흐른다. 12월부터 꽃망울을 터트려 4월까지 피고지기를 반복하지만, 가장 추운 1월에는 꽃 피우는 일을 멈춘다. 꽃이 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벌과 나비 대신 앙증맞은 동박새가 꽃가루를 옮겨주는 가루받이를 한다. 추위를 견디며 꽃을 피우고 질 때는 꽃송이째로 떨어지므로 애절함을 상징한다. 선조들은 그 기개를 높이 사소나무·대나무·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 여기에 동백을 더해 엄한지우(嚴寒之友)라 부르며 귀히여겼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난다'는 뜻의 신선전망대에서는 일망무 제의 조망이 트인다. 정면으로 보이는 섬이 남성성을 띠었다는 외도다

동박새 울음 담아
자연으로 품은 웅지
엄마 품 속 전복 소라
아침 바위 잠 깨우고
흑진주 몽돌소리
멍든 가슴 쓸어내면
아름드리 동백너울
희망 꽃 피운다네
애! 한려에 영광
대한의 내도예!

일출이 아름답다는 세심전망대다. 확 트인 바다 너머 왼쪽으로 서이말등대가 아슴하다. 이어서 소 사나무숲을 지나 닿은 너른 쉼터에는 거대한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연인길 삼거리에서 신선대전 망대를 왕복하는 길은 동백과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멋진 풍경을 자이낸다. 소나무는 솔나무로 불 렀다. 솔(率:거느릴 솔)이란 '으뜸'이란 뜻으로, 나무 가운데 으뜸이 바로 소나무였던 것이다. 아기 가 태어나면 대문에 솔가지를 끼워 금줄을 달았고, 솔잎으로 송편을 쪄먹었으며, 송진은 기름으로 귀하게 썼다. 또한 산간초막의 기둥과 대들보는 물론 애국가 노랫말에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대표한다. 푸조나무와 동백나무, 노박덩굴이 오랫동안 뿌리가 엉켜서 한 나무처럼 자라나 는 '어울림나무'의 묘한 모습은 덤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난다'는 신선전망대에 오르니, 해무 때문에 멀리 대마도는 보이지 않는다. 왼쪽으로 서이말등대, 오른쪽 끝으로 해금강이 보이고, 바로 정면 외도 뒤로 갈매기 섬이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남해의 홍도가 작게 보인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대표 명소인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수정산, 구조라해 변, 와현모래숲해변, 공곶이가 수묵화처럼 펼쳐지는 희망전망대를 나와 선착장으로 향한 길은 나무데크로 이어진다.

작지만 때 묻지 않은 섬 내도는 넉넉잡고 두 시간이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햇볕을 가려주는 시원한 '동백숲길'은 멋스러웠고, 길섶에 떨어진 동백꽃과 부서지는 파도소리, 시원하게 하늘높이 솟은 '대숲길'과 '곰솔길'의 매력에 빠졌다. 애니메이션 '원령공주'가 사는 신비로운 숲처럼 거목들이 가득한 원시의 숲은 걸을수록 여유가 넘쳐 행복했다.

'마끝' 벼랑 위에 수십 그루 곰솔이 한 폭의 그림처럼 서있다. '동백섬'으로도 불리는 지심도는 거제팔경의 하나로 '전국의 걷고 싶은 길 17선'에 뽑힌 '보물섬'이다.







지심도

장승포항 옆에 있는 도선장에서 배를 타고 갈매기 벗 삼아 15분이면 지심도에 도착한다. TV프로 그램 '박2일'을 촬영한 유명세 때문일까. 평일인데도 선착장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니 주말과 휴일에는 몸살 난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의 형태가 '마음 심(心)'자를 닮아서 지심도란 이름을 얻었다. '경상도속찬지리지'는 지사도(知士島)로, '여지도서'와 '조선지지자료'는 지삼도(只森島, 知森島)로 기록했다. 아마 우거진 숲 때문이리라. 면적은 0.356㎢, 해안선길이 3.7㎞, 최고점은 97㎞다. 조선 현종 때 주민 15세대가 이주해온 이래 현재 13가구 22명이 밭농사와 유자 재배. 민박을 치며 생계를 꾸려간다. '동백섬'으로도 불리며, 거제팔경의 하나로 '전국의 걷고 싶은 길 17선'에도 뽑힌 '보물섬'이다.

선착장에서 시작하는 가파른 콘크리트길은 마을을 잇는 유일한 선이다. 이동수단은 전기자동차나 수레를 단 오토바이가 전부다. 민박집 마당을 지나 지심도발전소 앞에서 이정목을 따라 내려가면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걷기에는 다소 좁은 숲길이 나타난다. 발밑에서 사각대는 소리가 그칠 즈음 마파람을 맞이하는 '마끝' 벼랑에 곰솔 수십 그루가 그림처럼 서있다.

마끝에서 돌아 나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나 국방과학연구소 사거리에서 정면 폭신한 숲길로 접어들면 태평양전쟁 때 미국과의 일전을 위해 일본군이 만든 2기의 포진지와 탄약고를 만난다. 지심도 역사문화안내실로 활용하는 당시 탄약고에는 일본군 포대 설치 상황과 지심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하늘이 활짝 열리며 드러난 넓은 초지는 짧은 거리임에도 활주로라고 부른다. 일본군 경비행기가 이착륙했다는 이곳은 지심도에서 가장 높아 바다 쪽에서는 일출을, 뒤편 옥녀봉에서는 일몰을 즐기는 명소가 됐다. 겨울을 밀쳐낸 바람이 마치 자랑하듯 마른 억새를 살랑살랑 흔든다. 해안선 따라 마주 오는 길꾼들은 모두가 주인이고 또 손님이다. 눈인사를 건네면서 지심도의 백미 동백터 널로 들어간다.

지심도 숲의 70%는 동백나무다. 족히 수백 번의 사계를 이겨냈을 거목들이 서로 꼬인 채 얽히고 설켜 있다. 하늘도 바다도 보이지 않고 한 줄기 햇빛조차 허용치 않는 동백숲은 '비밀의 회원'으로 통하는 입구 같다. 길 위에 듬성듬성 내려앉은 빛 조각은 먹지에 흩뿌린 흰 물감처럼 모습이 묘하다. 누구를 애타게 기다리다 피어났기에 이토록 선홍색을 띠었을까. '겸손한 마음, 누구보다도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동백의 꽃말은 가장 아름다울 때 꽃송이째 '툭~!' 떨어지는 모양, 애절함의 극치다.

가난한 홀아비의 만딸로 태어난 마리 듀프레시스는 12세에 파리에 올라와 돈과 사랑 사이의 애증을 통해 사교술을 익히며 고급 창녀가 된다. 밤마다 파리의 극장에 나타난 마리 듀프레시스, 한 달에 25일은 하얀 동백꽃을, 5일은 붉은 동백꽃을 기슴에 달아 호색한들의 관심을 끈다.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백 작'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한 스페인 여행 중 그녀는 세상을 뜬다. 그가 쓴 소설 '동백아가씨'는 마리 듀프레시스를 기린 것이고, 베르디는 이를 오페라로 만들었다. 라트라비아타(La Traviata), 일명 '춘희'다.

모진 해풍을 견뎌낸 농염한 동백을 감상하며 걷는 느린 발길이 일본군이 운용한 서치라이트 보관소와 지심도 주변을 표시한 방향표지석을 스쳐간다. 누군가 길 옆에 떨어진 동백꽃송이로 글자를 그려놓은 곳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사진으로 담는다. 옛날 일본육군의 깃발은 태양을 퍼져가는 햇살로 도안한 교쿠지쯔키[旭日旗]였다. 이를 게양했던 자리를 지나면 길 끝에 마련한 해안선전 망대다. 광활한 바다는 길손의 곤함과 아쉬움을 아는 걸까. 오랜 세월 파도와 샛바람이 깎아낸 멋진 해식절벽을 보여준다.

이제 왔던 길에서 벗어나 우회길로 들어서 텃밭이 있는 삼거리에서 오른쪽 대숲을 끼고 열린 널 판길로 발길을 잇는다. 아담한 노천카페로 변신한 일본군 등화소장 사택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그 마한 언덕 넘어 고즈넉한 숲길 끄트머리가 지심도선착장이다.



일본군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었다는 방호벽 안에 직경 4m 포대를 만들어 45식 15mm 캐논포를 설치하고 남쪽과 북쪽에 계단을 뒀다.

활주로라고 부르는 이곳은 일본군 경비행기가 이착륙했던 자리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지심도에서 가장 높아 해돌이 명소로 유명하다.





지심도는 섬이 작아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 전기자동차나 오토 바이에 짐수레를 달고 사람과 짐을 실어 이동을 도와준다.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주행은

편안한 자세로부터

운전 자세 습관

2014년 말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섰다.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자동차 수가 많아질수록 이용시간 또한 늘어난다. 운전 중 피로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자에 따라 운전 자세는 각양각색이다. 운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시간은 짧지 않다. 긴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운전자는 저마다 본인이생각하는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잘못된 자세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편하게 앉다 못해 침대에 눕듯이 등받이를 뉘어 앉는다거나 운

전대에 매달리듯 앉는 자세는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운 자세는 언뜻 편해 보이지만 어깨에서 운전대까지의 거리가 멀어 목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긴급상황에서 운전대 조작이 어렵다. 또 클러치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에도 제대로 힘주어 밟지 못한다.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이다. 운전대에 매달리듯 앉는 자세는 경직된 자세로,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충돌사고가 나면 운전대와 부딪쳐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편한 자세는 안전과 직결

지향해야 할 자세는 분명하다. 편안하면서도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다. 먼저 좌석을 운전자에게 알맞게 조절할 필요 가 있다. 좌석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좌석에 최대한 밀착해 깊숙이 앉는다. 그리고 좌석의

• 1. **좌석에 앉을 때** 먼저 좌석에 최대한 깊숙히 앉는다.







위치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한다. 좌석의 위치는 브레이크나 클러치 등 페달을 최대한 눌러 밟았을 때 무릎이 조금 굽혀지는 정도가좋다.

등받이의 각도는 약 110~120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등받이에 어깨를 완전히 붙인 상 태로 운전대 상단에 팔을 뻗어 손을 얹으면 속목이 걸쳐지는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적당히 구부러진 팔을 유지한 채로 운전 할 수 있다. 팔을 다 편 상태로 운전하면 운전 대가 돌아가는 각도가 제한적이고 무리해서 돌릴 경우 어깨와 등에 무리가 생긴다. 또, 팔 을 다 펴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 로 목을 앞으로 빼고 운전하게 된다.

마지막은 기본적인 운전 자세다. 운전할 때는 등, 허벅지, 목, 머리, 발 등 신체의 최대한 많은 부분이 좌석과 발 받침대에 닿게 하는 것이 좋다. 신체가 어딘가에 닿아 있으면 근육의 긴장이 줄어들고 그만큼 피로도를 낮출 수있기 때문이다.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움직이기 좋다는 것도 장점이다.

운전습관 OX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DMB를 시청하지 않아야한다는 걸 안다. 법으로 정해진 안전사항이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운전 자세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운전 자세는 멋을 위한 게 아니다. 안전과 편 안한 운전을 위한 것이다. 올바른 운전 자세 를 습관화하자. 흔한 운전자의 잘못된 자세와 요구되는 자세는 아래와 같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 X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아라! 0

운전의 기본은 언제나 두 손으로 운전대의 좌우를 잡는 것이다. 정교한 조작과 자신이 어느 정도 운전대를 비틀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을 때 비로소 척추가 똑바로 선다.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 다른 팔은 어딘가 기대고 운전하게 되는데 몸이 비스듬하게 기울어 장시간 운전했을 때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발끝으로 페달을 밟는다? X

발바닥 전체로 페달을 밟아라! O

누군가는 발끝, 발가락만 움직여 페달을 밟기도 한다. 하지만 정확한 조작을 위해서라면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페달을 밟는 게 좋다. 발목을 까닥이는 게 힘이 덜 들 것 같지만 다리 전체를 움직여 발바닥 전체로 페달을 밟는편이 오히려 힘이 덜 든다. 또 빠르게 페달을 옮겨 밟기 좋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생명이 달린 찰나의 시간이 여기서 결정된다.

어깨까지 좌석에 다 닿게 앉았다? X

머리 뒤통수까지 헤드레스트에 닿게 하라! ○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닿으면 움직임에 제약이 따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시선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닿아있지 않을 때는 시선이 이동 폭이 더 커진다. 전방시야 뿐만 아니라 후방시야 확보에도 뒤통수가 헤드레스트에 닿은 편이 좋다.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닿지 않았을 경우 목과 어깨, 등에 고스란히 피로가 쌓인다. 안전벨트의 적절한 유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3. 시트의 각도 조정 등받이에서 어깨를 떼지 않고 팔을 가볍게 뻗었을 때 손목이 운전대 상단에 살며시 걸치는 정도로 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면 된다.



 4. 운전자세 머리부터 어깨까지 뿐만 아니라 쉬는 발은 발 받침대에 얹고 머리는 살짝 헤드레스트에 닿게 하는 게 좋다.



2014년 서거 50주년을 맞은 가인 김병로 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다

가인 김병로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민족변호사로 서의 삶과 광복 뒤 사법체계의 근간을 만들었던 대법원장으로서의 삶이다.

1888년 1월 27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는 법조인 전에는 독립운동에 몸을 담기도 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 향리의 용추사를 찾아온 최익현 선생의 열변에 감화돼 18세 때 최익현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였 다가, 의병부대가 해산하자 1906년 20세 때 김 동신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7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순창읍 일인보좌청을 습격하기도 했다.

유학을 결심한 김병로는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다. 유학생 시절에는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발간하고 있던 잡지 〈학지광〉의 편집장을 지냈고, '금연회'를 조직하여 조선 유학생의 학지금을 보조했다.

1919년 조선총독부의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리 고 1년이 지나자 주저 없이 법복을 벗어던지고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가 되면 독립운동가의 변 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업한 김병 로는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로 변호 했다. 105인 사건을 비롯해 대동단사건, 단천농 민조합사건, 여운형 · 안창호 등이 연루된 치안 유지법 위반사건, 흥사단사건, 6·10 만세운동, 간도참변, 정의부사건, 대한광복단사건 등 변호 한 사건이 1백여 건이 넘는다. 그는 식민지 법정 에서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사상은 조선인 전 체가 가진 건데, 이를 처벌한다면 양민을 억지 로 법의 그물에다가 잡아넣는 것"이라며 일갈 한 민족변호사였다.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변호 사 정직 처분이 떨어지고 탄압이 이어지자 경 기도 양주에 가 농사를 지으면서 은둔생활을 했 다. 일제강점기에 그는 나라를 잃은 슬픔에 '거 리의 사람'이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호를 자신에 게 붙일 정도로 조국을 생각했다.

내 인생의 롤모델 🔸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청렴한 법조인이다. 주변에 김병로 선생에 대해 물으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법조인 사이에서는 '법조 3성'으로 추잉받는다.

나 또한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EBS 지식채널에 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보는 순간 그분의 삶에 반해버렸다. 친일파 청산과 독립운동가 변호에 적극적이었고, 대법원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했을 때에도 헌법에 어긋나면 대통령도 비판받이야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줄 알았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간 선생은 권력에 허리 굽히지 않았으며 민족의 앞날을 생각했다. 그분의 삶은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다." - 가인 김병로(1954년 3월 제2회 법관훈련회동에서)



광복이 되자 한국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여 중앙감찰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46년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법원장으로 선임되었다.

9년 3개월 동안의 대법원장 재임 기간, 김병로는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김병로는 1954년 법관훈련회동에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정의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를 반성해 보고 내 마음과 내 신체를 동일시하여 모든 것을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법관으로서는 타락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과는 불편한 관계였는데,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개 비판하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한 일화가 있다.

김병로는 박봉에 사표를 낸 법관에게 자신도 죽을 먹고 산다고 만류할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고 후배에게 금권과 권력을 멀리하는 혹독한 법관의 길을 요구했다. 당시 사법부장의 한 달 봉급과 맞먹는 양복 입기를 거부하고 평소에도 한복을 즐겨 입었다. 점심시간에는 집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추운 겨울에도 대법원장실에 기름 대신 톱밥이나 연탄을 땠다.

법관으로서 가인 김병로의 최대 업적이라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개편하는 등 현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일구어 냈다는 점이다.

1957년 12월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 라며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해 법조계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열린 서재

자료실에서 사우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인기 도서를 소개합니다

숙성된

시각으로 건네는 **위로**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 구영회

66

저자는 우리 현실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가장 숨 가쁘게 살아왔지만 현실에 빠지거나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스스로를 성찰해 왔다. 이 책은 성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온 한 멋진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자 깊은 명상이다. 나는 아름다운 '지리산 사람' 구영회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인용(전 MBC 앵커)



대자연 앞에 선 사람들은 크든 작든 간에 공통적으로 경외감을 느끼고 초자아적인 상태에 빠져든다. 복잡한 일상을 잊게 되면서 가장 낮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현장을 대표하는 방송국에서 무려 30년이 넘게 일하던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저자 구영회는 MBC 정치부장, 보도국장, 해설주간에 삼척MBC 사장, 한국신 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33년 언론인 생활을 마감했다. 그리곤 지난 20년간 틈틈이 찾아가곤 했던 지리산에 아예 눌러앉았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고 글로 풀어냈다. 그리고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로 엮어냈다.

그동안 지리산과 관련한 책들이 주로 여행이나 산행, 답사와 탐방 등 겉으로 보이는 '지리산 찾아가기'에 집중했다면 이 책은 '지리산이 찾게 해준 자신의 새로운 내면'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밀착하지 않으면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지리산에서 맺은 아름답고 가슴 찡한 인연의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솜씨가 방송인답게 간결하다. 한마디로 지리산의 깊은 산속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게 느껴져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한반도 남쪽 최대의 자연이자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지리산의 속살을 체험하며 맑은 영혼의 숨을 쉬어보는 것도 좋겠다.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평소 '언젠가는 지리산 근처에 황토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그런데 마침 그런 내용의 책이 출간되었기에 읽게 되었다. 저자는 지리산에 머물며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적어 내려갔다. 솔직담백한 산중일기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을 어떻게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때 읽으면 좋을 책이다.

- 글 신호근(동력4과)

문화 + 콘텐츠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와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연극]

를 경숙이, 경숙이버지

〈경숙이, 경숙아버지〉

떠돌이로 대변하는 슬픈 한국 현대사

2006년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평론 가협회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을 수상한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가 간만에 공연된 다. 현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가족 이 등장해 관객을 울리고 웃긴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혼자서 피난을 간 경숙아 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수용소 동지라는 꺽꺽이를 데려다 집에 얹혀놓는다. 그리고 또 꿈을 펼친다고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경숙어머니가 꺽꺽이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아들 낳는데 좋다며 지리산에서 캔 약초를 건넨다.

일시 | ~2015년 4월 26일까지 장소 | 수현재씨어터



박람회

국제유기농산업박람회

건강한 삶을 위한 유기농 잔치

유기농 산업 트랜드에 맞춰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제품을 소개하고 관련업계 거래상담을 비롯한 정보교류의 장이다. 유기인증업체 혹은 2015년도 인증예정인 업체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박람회의 신뢰도를 높인다.

부대행사로 건강기능 한중교류회와 유기농화장품, 성인병예방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약 500개사의 700부스가 설치 운영된다.

일시 | 2015년 4월 23~25일 장소 | 코엑스





〈정원〉전

생각이 막힘없는 상상력의 정원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울창한 초록빛 숲의 마중으로 시작되는 〈정원〉전은 '당신은 영혼이 고양되는, 막힘없이 자유롭게 소요할 수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과 같다. 정원에는 햇빛과 바람이 들어 삶을 쾌적하게 해줄 뿐 아니라 감상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만남', '쉄', '문답', '소요유'라는 네 가지 주제 로 구분되는 전시를 통해 다양한 상상력과 감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 | ~2015년 5월 10일까지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경숙이 경숙아버지의 한 장면



2014 국제유기농산업박람회 현장

독자 광장

S-OIL MAGAZINE

Vol.401

2015 April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박청호 탈황2과

김효동 Aromatics생산2과

임태순 회계팀

송윤진 호민주유소(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USB저장장치

강도연 탈황1과

조성환 올레핀사업개발팀

이재두 온영LPG충전소(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차종석 일류주유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성장의 기록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 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 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 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 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이달의 엽서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2015 생산직 신입사원

회사의 비상에 날개가 되겠다는 젊은 친구들을 보니 힘이 생기고 밝은 장래가 그려집니다.

_ 박정란(청기와주유소,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No.1 주유소〉 이산 삼성GOOD주유소

마음을 다하는 경영방침으로 주유소를 이끄는 대표자의 사연에 감동 받았습니다.

_ 박지홍(광영주유소, 전남 광양시 강변로)



〈가족이야기〉 유황2과 이상규 사우 가족

교대근무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기에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_ 오종령(분해2과)



〈열정 24시〉 프로젝트기술부문 한기원 사우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들을 믿고 일한다'는 직원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_ 한승수(덕진주유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두런두런 수다방〉 인도 여행기

'마음 풍요로운 순수의 땅' 인도는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_ 이장식(세종주유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저산태성로)



〈섬을 걷다〉 화성 국화도-입파도

휴일 없는 일상 가운데 여유로운 여행이 필요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_ 이경섭(경원석유, 경북 경산시 장산로)

〈들꽃〉



봄의 꽃들은 바람이 데려가거나, 흙이 데려간다. 이처럼 빨리 사라지는 들꽃은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노래한다. 화가의 손은 붓길 따라 봄을 노래한다.